

# 2017.8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7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8.29	대전MBC 대회의실	9/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정철상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장래균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김미리 사업국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10	-	1	20	-	2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5	5	-	2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8월
교양	시사플러스 전개방식 인터뷰 위주가 많다. 영상구성 변화를 바란다.	시사플러스 8/3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8/102018년 최저임금 8/31개발이나 보존이나,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등에서 충분한 취재를 통한 영상으로 구성	8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 사안의 설명보다는 패널들의 활기찬 토론 기대	시사토론 프로그램 8/6 “인터넷은행 돌풍, 금융판도 바뀌나” 8/27“살충제 달걀 파동.. 식탁 안전은?” 등에서 패널 열띤 토론으로 프로그램 구성	8월
보도	뉴스 프로그램 “금요일 문화가 산책” 음량 갑자기 높아짐	음량 확인해 8월 뉴스데스크 “문화가 산책” 코너 음량 정상적으로 송출	8월
교양	건강프로그램(TV) 하단 자막 노출 보다 많이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8/5 편도질환, 8/19 중이염, 8/26 치매 등에서 하단 자막 노출 강화함.	8월
보도	피서철 우리지역 가볼만 한 곳 보도필요	뉴스투데이 “8/2 사진 찍기 좋은 곳 피서객 몰린다” “8/8 공짜로 즐겨요 알뜰피서지” 등 보도	8월
기타	홈페이지 시청자의견 피드백 필요	홈페이지 시청자의견 바로바로 관련 의견 답변 게시	8월
보도	4차 산업혁명 지속적 보도	뉴스데스크 “8/16 대전을 4차 산업혁명 거점으로” “8/27 4차 산업혁명 - 창업여풍 새바람” 등 보도	8월
보도	뉴스제작 시 전문가 의견 인터뷰 시 걸맞는 전문가 인터뷰 삽입 필요	6/17 옥수수수염 혈관지환-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인터뷰, 8/24 살충제 달걀-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8/27 실버존-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인터뷰 등 적절하게 전문가 활용	8월
보도	전국뉴스로 송출한 아이템 로컬뉴스에 반복 송출 안되도록	전국뉴스로 송출된 뉴스를 로컬뉴스 송출시 재편집	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 ~ 2018.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
위원	김종문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단체	-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8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8/29) ‘사랑의 집 고치기 31호 금산덕천리’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아궁이 생활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 아들과 무릎장애를 겪고 있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불편함이 없는 새로운 집으로 고쳐 주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로서 마음이 따뜻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대전MBC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강은혜).</p>	<p>‘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는 대전MBC가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선정하여 집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삶의 희망을 선사하는 의미있는 일이다. 지역방송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가치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책무라 여긴다.</p>			
교양	<p>8/21,8/23 방송된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시청자들로부터 그 날의 주제에 맞는 문자를 받아 읽어주는 코너가 있다. 진행자가 태블릿을 보고 읽다가 영상으로 문자 소개가 된 후에도 한동안 진행자가 계속 태블릿을 보며 문자소개를 하는 모습이 측면으로 보여 졌다. 그 후 내일 방송 예고를 보는 멘트 후에 영상을 본 다음 마지막 진행자의 클로징 멘트 할 때까지도 측면에서 화면이 보여 졌다. 문자 소개 할 때까지는 측면에서 보여 지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만 마지막 시청자들에게 인사할 때까지도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화면이 비춰지는 모습은 시청자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불편했다(강은혜).</p>	<p>제작진이 화면 구성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한 의도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클로징 멘트 시 측면 화면은 시청자에게 익숙지 않은,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토록 하겠다.</p>	○		
교양	<p>시사플러스(8/3)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점주는 파트너인가 을인가?” 초반부에 복잡한 사실관계를 인터뷰로 정리하려다 보니 지루하고 어려웠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의 경우는 SBS &lt;그것이 알고 싶다&gt;처럼 진행자가 중간 중간에 진행을 해주면 더욱 집중력 있게 시청이 가능할 듯싶다. 천안 피자 헛 내용부터는 피자 헛이 비교적 친숙한 브랜드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기 편했다. 말하는 속도가 느린 인터뷰이(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등)의 경우 1.2배속 등으로 빠르게 말을 하는 것처럼 편집해줬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p>	<p>복잡한 사실관계를 시청자에게 쉽고 이해하기 쉽게 다루지 못해 아쉽다. 시사 프로그램은 사실에 근거한 팩트와 진실에 접근하려는 치열한 추적이 어우러질 때 시청자에게 울림이 전해지리라 생각한다. 지적하신 느린 인터뷰이의 멘트에 대한 배속 편집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치 않는다. 본의와 다르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긴장과 짜임새 있는 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p>		○	

	<p>램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 계획’은 처음 들어보았다. 프랜차이즈 갑질의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완결된 프로그램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된다(김은주).</p>				
교양	<p>시사플러스(8/24) “닭에게 날개짓을 허하라. 살충제 달걀파문“</p> <p>충남에 양계농가가 많아 밀착감 있는 현장 취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장 취재 영상이 아닌 자료 영상인 것 같아서 아쉬웠다.</p> <p>할랄 도축장 문제는 처음 접하는 내용에서 문제의식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느낌으로 신선했다.</p> <p>그러나 역시 편집할 때 인터뷰이들 말 속도 조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가 인터뷰 때 갑자기 속도가 느려질 때마다 채널을 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김은주).</p>	<p>‘닭에게 날개짓을 허하라’ 코너는 영상과 음악, 그리고 자막으로 시사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p> <p>‘할랄 도축장 문제’는 전 세계 17억 무슬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이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도로 기획됐다.</p>			
교양	<p>아침이 좋다(8/15) 진행하고 있는 여자MC의 시선처리가 불안하다. 방송대본이 준비되어 있어 대본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카메라 시선처리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하여 탁자를 번갈아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시청자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방송 전 사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김종문).</p>	<p>여자 진행자는 안정된 음색과 차분한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적하신 당일 대본 숙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 주의하겠다.</p>	○		
교양	<p>아침이 좋다(8/15) 코너인 “건강톡톡”에서는 비타민 등 프로그램에서 많이 얼굴을 비춘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교수가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친근감 있게 관절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젊은 층이 왜 발병율이 높은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그림이 없어 아쉽다. 실제 환자의 인터뷰나 관련 영상물이 설명 도중에 첨가되었더라면 좋았겠다(김종문)</p>	<p>‘건강톡톡’은 전국적인 지명도의 전문의 코너라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 생방송이라 자료 그림에 대한 준비가 쉽진 않다. 그렇지만 개선점을 모색하겠다. 생방송에 어울리게 SNS를 통해 시청자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p>	○		
보도	<p>재난 관련 뉴스의 가치판단에 대해 언급하겠다. 8월 24일 오후 아산, 충남, 대전 등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고 산림청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황 발표하였다. 뉴스에서는 제1신을 ‘육군중사 음주운전 사고’, 제2신으로는 ‘달걀파문’ 제3신으로 ‘대전시티투어 버스’ 등으로 하고 호우 뉴</p>	<p>재난 관련 뉴스가 정보 가치 면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앞으로 재난 관련 뉴스를 전진 배치 하겠다.</p>	○		

	스를 제4신으로 배치하여 재난관련 뉴스 배치를 후순위로 하였다. 이해가 안된다. 재난관련 뉴스는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여 방송할 필요가 있다(이승선).			
보도	날씨 기사의 영상화면이 대전 중심이다. 금산, 부여 등 대전 이외 지역의 기상정보 소개 시 뉴스영상물을 보면 그 지역의 영상이 아닌 대전지역 영상으로 기상 정보가 소개 되었다. 관련 지역 영상물로 정보와 영상이 일치되어야 한다. 날씨 기사의 영상이 다른 날짜에도 동일하게 반복 사용되고 있다. 8월15일 충청지역 강수량 소개 8월18일 홍성, 보령 지역 강수량 기상정보 소개 시 자료화면은 대전 둔산 지역의 특정 장소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동일한 영상을 서로 다른 날짜에 반복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승선).	날씨와 같이 불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을 영상으로 커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날씨 보도 시 적절한 영상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보도	문화 정보를 비롯한 다수 영역의 뉴스 정보가 대전 이외의 지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 8월 25일, 26일 문화행사는 주로 대전 지역의 문화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산인삼축제 소개가 있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대전 중심의 행사와 문화 이벤트에 치중하고 있다. 대전 이외 세종, 충남의 행사도 관심을 갖기 바란다(이승선).	세종, 충남 행사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	
보도	8월 17일 뉴스데스크 “대전도 살충제 달걀-대전 충남 5곳 검출” 8월 18일 뉴스데스크 “대전충남 9곳 검출-새로운 살충제 나와” 뉴스 관련 개별사업장의 특정 농장이 이틀간 동일하게 반복되어 노출되었다. 우선 17일 뉴스와 18일 뉴스는 별개의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자료 영상도 달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이를 연거푸 방송에 노출이 되면 개별사업장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별도 취재한 영상을 사용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보에는 새로운 영상 구성이 필수이다(이승선).	영상 취재 여건이 여의치 않아 자료화면을 상용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다. 속보 성격이라도 새로운 소식에는 새로운 영상을 쓰도록 노력하겠다.		○
보도	8월22일, 8월25일 릴리안 생리대 사용자(여성)의 육성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특히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여서 더욱 초상과 음성변조는 필요했다. 8월25일 대전둔산 노래방 화재사건에서는 영상은 모자이크가 됐지만 음성은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인	모자이크 처리되는 인터뷰는 반드시 음성도 변조하도록 하겠다. 본인의 동의 절차를 구해 취재를 했지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토록 하겠다.	○	

	<p>터뷰이 보호 차원에서 초상과 음성이 동시에 보호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와 음성변조에 유의하여야 한다(이승선).</p>			
교양	<p>어영차 바다야(8/22)에서 어민들의 삶과 해산물 요리 등이 잘 소개되었다. 취재 또한 단일한 곳이 아닌 보성, 벌교, 통영, 강릉 등 전국 지역을 취재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내륙지역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진행자 오정혜씨는 지방사투리를 쓰면서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갔다. 24일 방영된 테마기행 길에서는 통영편이 소개되었다. 진행자의 사투리가 제법 심했다. 그 지역에서 그다지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시청자에게 다소 거북할 수도 있겠다.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므로 계열사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조정해 주길 바란다(송길현).</p>	<p>‘어영차 바다야’는 목포MBC에서 제작하는 바다를 지닌 어민의 삶을 충실히 보여주는 대전MBC와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p> <p>‘테마기행-통영’편에서 진행자의 진한 사투리 표현은 타 지역에서 불편할 수 있어 계열사 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p>		
기타	<p>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대전MBC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출연 연구기관의 소개, 성과물 소개 등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 과학도시임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각인될 것이라고 본다. 출연연구기관과 지역민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잘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함진호).</p>	<p>“2017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덕특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혁신기술을 통해 미래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우고 배우면서 체험하는 축제이다. 과학체험, 문화예술, 별축제 등 특별행사 등등이 엑스포 시민광장 일원에서 10월 21일부터 4일간 펼쳐진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전시민에게 과학의 새로운 장을 펼치도록 하겠다.</p>	○	
교양	<p>시사플러스(8/18) “손 안의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돌풍 어디까지”에서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금융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과 함께,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대출이 쉬워진 만큼 건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p> <p>인터넷 전문 은행이 기존 은행과 달리 대출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피해상황에 대해 보다 깊고 자세하게 취재가 되어야 한다 이를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해주길 바란다(신종성).</p>	<p>짧은 시간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 인터넷 은행은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낮은 금리 그리고 손쉬운 대출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반면 기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안성, 인터넷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미비 등은 시정해야 될 요소다.</p> <p>인터넷 은행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p>	○	
보도	<p>편성제작국의 “시사플러스”와 보도국의 “시사토론M”에서 다루는 주제가 많이 겹친다. 시사플러스가 야외ENG 제작으로 이루어지고 시사토론M이 패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제</p>	<p>시사토론M과 시사플러스의 주제가 겹치는 경우가 있었다. 프로그램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가 비슷하더라도 방송을 했다. 가급적 프로그램 간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p>	○	

	가 많이 겹쳐 차별화주길 바란다(이상진)				
교양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일련의 수처리 과정을 해수담수화라고 한다. 해수를 농업적으로 잘 활용해보자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감자를, 일본에서는 고구마를 해수를 활용하여 재배하고 있다. 우리도 해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숙고해 보야 한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을 제안한다(이상진).	해수 담수화는 인류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술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해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겠다.			
보도	물관리 통합에 관한 논의가 정부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수량, 수질 등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해 수질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과 함께 집중 토론회 있었다. 통합 물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합 물관리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이상진).	물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뭄으로 애를 태운 적 있고 이후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다. 물관리에 관한 취재를 빠뜨리지 않고 적시에 보도하도록 하겠다.	○		
보도	8월 1일 오전 7시 33분경 대전에서 천둥, 번개치고 폭우가 내리쏟고 있는데 뉴스의 기상방송에서는 밝은 날씨 배경으로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전달하고 있었다. 전날 녹화 그림을 배경으로 날씨를 전달했다고 보는데 임기응변이 약하다. 폭우가 있는 날에는 비 오는 영상으로 재빨리 바뀌어야 한다(김종문).	기상캐스터가 전달하는 날씨 코너 제작 시 사용할 배경화면 선정에 각별히 주의할 기율이겠다.	○		
교양	건강플러스(8/17)에서 종이염을 소재로 방송을 하였다. 종이염을 설명하는 출연 의사나 진행하는 아나운서 전체적으로 지루하였다. 적절한 자료화면과 진행자의 순발력과 출연의사의 산뜻한 진행이 필요하다(신성철)	훌륭한 의사가 방송을 잘하지는 않는 것 같다. 방송에 적합하면서 실력있는 의사를 섭외하도록 노력하겠다.	○		
보도	뉴스 프로그램에서 뉴스 자막이 제대로 띄어쓰기가 안 된 상태 그대로 방송 되고 있다. 유의해 주길 바란다(신성철).	자막 송출 시 맞춤법에 주의하겠다.	○		